

'월간더문화' 문화전주, 피어오르다

더문화·문화공간 이룸, 5월부터 시작된 공동 기획 장기 프로젝트 마지막 공연 27일 진행

사단법인 더문화(예술감독 이운정)의 '2022 월간더문화'가 8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되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마다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삶을 지역민들과 함께 그려온 '2022 월간더문화'는 2022년 사단법인 더문화와 문화공간 이룸이 공동 기획한 장기 프로젝트 공연이자, 긴 대장정의 끝에 마지막 12월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2022 월간더문화의 마지막 공연이 될 이번 12월에는 테너 '조태진', 테너 '지명훈', 바리톤 '석상근', 바리톤 '장광석' 네 명의 실력과 성악가들이 8개월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푼 추위인 12월의 추위에 얼어붙은 관객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며 화려하게 막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더문화 '문화전주, 피어오르다' 포스터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태웅콩쿨·티타투포·사르차나·프라스키니·아라갈 국제 콩쿨 등에서 우승 및 입상을 하였으며 싸울로 바르바치니 아트 메니지먼트 소속가수로 이태리·독일·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스위스·덴마크 등 15개국 주요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및 코리아 텐테너즈 초청 공연·KBS FM 40주년 기념콘서트·세바시 초청 강연, 그리고 경희대와 상명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바리톤 '석상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유럽의 권위 있는 국제 성악 콩쿨에서 7차례 그랑프리 우승을 하였으며 이태리 피에트로 마스카니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독일 뮌스터오페라극장 전속 주역 가수 역임, 대한민국을 빛낸 성악가상 수상, 이태리·독일·스페인·루마니아·폴란드·스웨덴·크로아티아 등의 유럽극장과 일본·중국 무대에서 활약, 서울종합예술학교 성악과 초빙교수 역임, 정부와 외교부 주관 국가기념행사에 초청되기도 한 성악가이자

현재는 사회적 기업 (주)블뮤직 소속 아티스트로 국내와 해외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마지막으로 바리톤 '장광석'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입용군 교수 사사)하고 비엔나 시립음대 오페라과 석사과정(Master of Arts) 이수, 2009년 독일 밤베르크 여름 오페라 축제 '라 보엠'·'바르셀로' 데뷔, 오스트리아·불가리아·체코·스페인·독일·크로아티아 등 유럽에서 20여 편의 오페라 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에 귀국 후 '투란도트'·'돈 조반니'·'리골레토' 등 지난 10년간 60여 개의 오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방송인·음악 칼럼리스트·환경단체 홍보대사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네 명의 성악가, '조태진', '지명훈', '석상근', '장광석'은 오는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전주 문화공간 이룸에서 2022 월간더문화 문화전주, 피어오르다 공연으로 문화가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무대를 위해 여러 장르의 곡들과 함께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이운정 예술감독은 "지난 5월에 출발한 2022 월간더문화가 어느새 긴 여정의 마지막 막에 도달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8개월 여정의 준비와 진행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지원하기도, 보내야 하는 섬섬 마음도 드는 것 같다"며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2022 월간더문화는 계기로 모든 관객분의 삶에 문화가 양껏 피어올랐기를,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시금 피어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12월의 마지막 공연에는 '2022 월간더문화 문화전주, 피어오르다'라는 부제가 정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관객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소리 없이 훌쩍 다가온 12월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따뜻한 가슴 채워 가시기를 바란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소통하며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 열심히 뛰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은경 기자

이동형 거리미술관 특별기획전

김제시, 내년 3월 31일까지 '썬지 초대전-미래된 식물' 개최

김제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공원 입구에 이동형 거리미술관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김제형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이동형 '거리미술관'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쇼윈도 갤러리로 9시부터 야간 24시까지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올 한해 거리미술관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김제문화재야행, 지평선축제 등과 연계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김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찾는 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썬지 초대전-미래된 식물'을 개최한다. 전북 청년작가 썬지는 광범한 일상을 조망하며 평면의 회화를 입체화하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가시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에 형광안료를 한층 한층 쌓고 중첩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작가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모색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동형 거리미술관은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쉬운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시민들 속에 녹아든 예술적 경험이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영감을 주고자 시도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군,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순창군이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군민과 함께하는 2022년 송년음악회'가 오는 20일 저녁 6시 30분 향토회관에서 개최된다. 송년음악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전통무용, 밴드, 아카펠라, 국악·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2021 조선판스타 김신욱과 빛나는 목소리를 가진 박강성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순창출신 무용가 박지성이 출연하는 한국무용과 국악관현악,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브라스밴드 '로우앙상블' 등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음악회가 다사다난



했던 한해 서로를 위로하고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희망과 용기를 가득 안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문화원, 제14회 진서회 작품 전시

진안문화원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안문화회관에서 '제14회 진서회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원들이 1년 간 갈고 닦은 서예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진안군이 후원하는 진안문화원 프로그램인 서예교실은 매주 화요일 서흥시 전북 서예협회 회장의 지도 아래 13명의 진서회 회원들이 서예를 연마하고 있으며 2022년 전북 서도대전에서는 7명의 회원이 입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덕희 진안문화원장은 "우리 지역 서예인의 친목 도모와 서예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전병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훌륭한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마



련한 진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2023년에도 진안문화원은 코로나로 주춤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대 이용욱 교수, 현대문학이론학회 회장 선임

전주대학교 이용욱 교수(사진·한국어문학과)가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년 정기총회에서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2년 임기의 학회장으로 선출된 이용욱 교수는 '국어문화회'와 '한국언어문화회' 학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학술지에 70여 편을 논문을 상재한 디지털시대 매체 미학과 문화 연구를 선

도하고 있는 중견 연구자이다. 이용욱 선임 학회장은 "30여 년의 전통과 학술지 9집을 발간하면서 한국 현대문학이론을 선도하고 있는 유서 깊은 학회의 학회장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면서 "2년 임기 동안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 콜로키엄, 국제학술대회 개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고자 설립한 순수 학술단체다. /정은경 기자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발전시켰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1992년 창간된 '현대문학이론학회'는 한국 현대문학과 문학 이론에 관한 제반 연구를 기반으로 학술교류를 도모하고, 한국문학의 발전을 꾀하고자 설립한 순수 학술단체다. /정은경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